

문법은 해석

문법은 해석

독해학교

문법은 해석

Chapter 0.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과 '문법은 해석'이 안내하는 해결 방법

독해학교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1]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1]	'Chapter 4. 완전한 술어 구조의 파악'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
<p>[1] 해석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개별 단어의 의미를 조합하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개별 단어의 의미를 조합하는 방법도 사용하지 못합니다.</p>	<p>제대로 된 해석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문장 작성 방식을 모르면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조합하거나, 조합된 내용을 우 리말에 끼어 맞추는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고, 내용 구조가 복잡해지면 이 방법도 적용하지 못합니다.</p> <p>단순하게 만들어진 영어의 문장 작성 원칙과 방법을 제대로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장의 내용이 구체화 되어 문장 이 길어지고 내용 구조가 복잡하게 보여도 사실은 쉽게 해석 방법을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의 문법(문장 작성을 위한 규칙의 모 음)은 체계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p>
<p>[2] 서술형 문제와 영작이 너무 어렵습니다.</p>	<p>문장 작성 원칙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술어로 사용된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동사가 요구 하는 요소인 목적어나 보 어를 추가해주는 것이 문장 작성의 핵심 방법입니다. 심지어 동사가 특정 의미를 표현할 때 목적어나 보어와 함께 사용 되어야 하는 지의 여부도 동사마다 일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규정된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활 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p> <p>동사 의미를 완성하는 방식의 문장 작성 방법에 익숙해진 후에 문장이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수식어, 단어가 조합 되어 만들어지는 의미 단위인 구, 문장결합 및 병렬구조 활용 방법에 익숙해지면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도 작성하거나 분석 해낼 수 있습니다. 문장 작성 규칙을 배우지 않았거나, 잘못 배웠기 때문에 길고 복잡한 문장에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p> <p>결론적으로 완전한 술어구와 전치사구 및 의미 단위의 두 가지 기능인 문장요소와 수식어를 파악할 수 있다면 문장 분석은 물론, 해 석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점이 해결될 정도로 영어는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언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영어를 잘못 배웠기 때 문에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p>
<p>[3] 영어가 동사 중심의 언어라고 하는데, 동 사 중심의 언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 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p>	<p>문장 작성 원칙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수식어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 문장 작성 방법은 술어로 사용된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 는데 필요한 목적어, 보어를 추가하여 완전한 술어 구조를 만들어 주고, 완전한 술어에 주어를 추가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영어 문 장이 전달하는 의미는 동사의 완성된 의미인 셈입니다.</p> <p>시간, 태, 법 정보 혹은 주어의 수와 관련된 정보 또 한 술어가 형태를 변형하거나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 표현합니다. 흔하게 접하는 to 부정사구, 동명사구나 분사구도 사실은 기본 문장을 작성할 때 사용 되는 완전한 술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 것입니다. 문장을 통 한 내용 전달의 대부분이 술어를 중심으로, 즉, 술어로 사용된 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영어가 동사 중 심의 언어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깨닫게 됩니다.</p>
<p>[4] 문법책과 문제집을 여러 권 끝내도 여전히 영어에 자신이 없습니다.</p>	<p>문장 작성 규칙을 배운 것이 아니라 문법 용어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또 한, 규칙 사용에 익숙해지는 연습 없이 패턴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해왔기 때문입니다. 단편적인 암기만 했을 뿐, 문장 구조를 뜯어볼 수 있을 정도로 의미 단위의 파악과 의미 단위의 기능 (문장요소 혹은 수식어) 파악에 익숙해져 있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p> <p>문제집 풀이만으로 문법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장을 뜯어보고, 수정해보고, 작성해보는 과정에서 작성 규칙에 익 숙해집니다. 영어 학습의 결과는 '익숙함의 정도'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p>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2]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2]

'Chapter 5. 술어가 추가로 제공하는 정보의 파악'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

[1] 형태를 변형하거나 조동사와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술어가 시제, 태, 법은 물론 주어의 수를 표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장 작성 원칙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술어로 사용된 동사가 표현하는 정보가 '동작' 혹은 '상태' 정보이므로 이들 정보와 반드시 함께 제공 되어야 할 시간 정보는 물론, 동작의 주체와 관련된 정보를 술어가 직접 표현해주는 것이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력 측면에서 효과가 높습니다. 또 한, 술어가 표현하는 정보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문장의 내용을 완성하기 때문에 문장이 전달하려는 내용의 의도(법, mode/mod) 또 한 술어가 직접 표현해주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주어의 수를 술어가 굳이 표현해주는 이유도 주어에 대한 술어의 관리 필요성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장 내용 작성에서 술어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술어는 단지 술어로 사용된 동사의 의미만을 전달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술어의 형태나 조동사의 포함 여부 파악에 소홀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단어로만 존재하던 동사가 문장에 포함되었을 때 얻게 되는 의무와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동사 중심의 언어'인 영어의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2] 시제/태/법/주어의 수 정보를 구분해서 파악하지 못합니다.

술어가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현 규칙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정보 전달을 위해서 다른 형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는 여러 가지 정보가 동시에 술어를 통해서 전달 될 수 있도록 법과 시제 정보를 중심으로 추가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을 구분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3]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3]	'Chapter 6. 수식 관계의 파악'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
<p>[1] 수식어가 문장에 포함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p>	<p>영어의 문장 내용 구성 방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술어로 사용된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문장이 작성 됩니다. 문장이 더 많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언어는 당연히 그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p> <p>영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문장요소로 하여금, 그래서 문장이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1) 수식어를 사용하여 각 문장요소에 추가 정보를 더해주는 식으로 문장요소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각 문장요소/수식어로 단어가 아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 단위(구 phrase)를 사용하여 문장요소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3) 두 개 이상의 문장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듦으로써 하나의 문장이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4) 문법 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장요소나 수식어의 개수를 늘려주어 문장요소로 하여금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병렬구조의 활용).</p>
<p>[2] 길고 복잡해 보이는 문장을 만나면 해석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p>	<p>수식어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장요소와 수식어 관점에서 문장을 들여다 보면 길고 복잡한 문장은 단지 더 많은 수식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일 뿐입니다.</p> <p>아무리 복잡한 문장이라고 할 지라도 문장요소가 전달하는 의미는 결국 술어로 사용된 동사의 의미가 완성된 것이라는 점과 수식어는 각 문장요소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장에 포함 된다는 사실을 활용하면 '수식어 → 개별 문장요소 → 술어로 사용된 동사의 완성된 의미 + 주체' 식의 과정을 통해서 문장을 쉽게 해석 해낼 수 있습니다.</p>
<p>[3] 수식대상을 찾지 못합니다.</p>	<p>수식어에 관해서 잘못 배웠거나 아예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식어는 문장요소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므로, 수식어 파악 목적은 수식대상어(수식어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는 대상, 문장요소)의 파악으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수식어가 추가 정보를 더해주는 수식대상어를 찾을 수 없으면, 수식어를 문장에 포함시킨 글쓰기의 의도 파악은 물론, 수식어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결정하지 못해 해석을 할 수 없게 됩니다.</p> <p>수식어의 기능 이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식대상어인 문장요소의 파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영어의 수식 규칙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수식대상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1) 문장의 아무 곳이나 수식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수식대상어를 염두에 두고 수식어의 위치(수식대상어의 앞에 위치하는 전치수식어, 뒤에 위치하는 후치수식어)가 결정 된다는 사실, (2)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완전한 술어 구조가 구나 절 단위의 수식어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3) 수식어로 사용 되는 단어의 품사 정보</p>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4]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4]

'Chapter 7. 전치사구의 파악'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

구(phrase)에 관한 교육과 학습이 잘못된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영어는 **전치사구**(prepositional phrase)와 **완전한 술어구**(to infinitive phrase, gerund phrase, participle phrase)라는 명확하게 규정된 **두 가지 구**(phras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가지 종류의 구에 국한해서 학습한다면 쓸데 없는 시간과 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 작성이나 해석 능력이 향상 되는 효과를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1] 구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헷갈릴 뿐만 아니라, 종류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흔하게 언급되는 **명사구**(noun phrase), **형용사구**(adjective phrase), **부사구**(adverbial phrase) 등은 **Syntax**라는 학문 분야에서 문장 구조 분석을 위해 **수식 관계**를 중심으로 묶은 단위일 뿐입니다. **수식어**와 **수식대상어**를 찾아내는 능력이 이들 단위를 찾아내는 능력보다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식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굳이 이들 의미 단위를 파악할 이유나 필요조차 없는 대상입니다.

동사구(verb phrase)도 마찬 가지입니다. 술어가 법, 시제나 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동사와 결합되거나 술어에 추가 정보를 더해주는 수식어를 포함한 묶음을 지칭할 때 사용할 수도 있는 용어일 뿐, 여러분이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술어가 표현해야 하는 추가 정보의 종류와 표현 방법, 그리고 수식 관계 파악 방법일 뿐입니다.

학습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되고, 결국 영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는 편견만 쌓아가게 됩니다. 명사구/형용사구/부사구라는 단위 파악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전치사구**와 **완전한 술어구**(to 부정사구, 동명사구, 분사구) 학습에 집중하세요.

[2] 전치사부터 어디까지가 전치사구인지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수식 관계를 제대로 학습 하지 않아 전치사와 결합한 명사나 대명사의 **수식어**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치사**부터 전치사와 결합한 **명사/대명사**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후치수식어**까지를 전치사구의 **범위**로 잡으면 됩니다.

전치사와 결합한 **명사나 대명사**는 **앞과 뒤에 수식어**를 가질 수 있는데, 뒤에 위치한 수식어(후치수식어)가 길어지면 해당 수식어까지 포함하는 전치사구의 범위를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수식어와 수식대상어 찾는 방법을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전치사와 결합한 명사/대명사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수식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전치사구의 수식대상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수식 관계를 제대로 학습 하지 않아 수식대상어 파악 방법을 모르거나, 파악 방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치사구는 **형용사**는 물론, **부사**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대상어**를 찾을 수 있어야 **기능**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치사구가 **문장의 시작점**이나 **완전한 술어** 구조의 **앞이나 뒤에 위치**한다는 특성과 기본적인 수식대상어 찾는 방법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전치사구의 수식대상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5]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5]	'Chapter 8. 완전한 술어구의 파악'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
<p>[1] to 부정사구/동명사구/분사구의 시작점은 쉽게 알아내지만 어디까지가 구의 범위인 지를 찾지 못합니다.</p>	<p>to 부정사구/동명사구/분사구가 공통적으로 완전한 술어 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구라는 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영어는 문장의 핵심 구조인 완전한 술어(complete predicate) 구조를 독립된 구(phrase)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한 술어구(to 부정사구, 동명사구, 분사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술어구의 범위는 문장에서 주어와 주어를 수식해주는 수식어를 제외한 나머지 완전한 술어 구조의 범위와 같습니다.</p> <p>결국 문장 작성 원칙에서 학습한 완전한 술어 구조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완전한 술어구의 범위 파악은 물론, 기능 파악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술어 구조를 안다는 것은 문장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뜻하고, 문장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수식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p>
<p>[2] to 부정사구의 기능을 파악하지 못합니다.</p>	<p>문장요소 파악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To 부정사구가 포함된 문장의 문장요소가 모두 채워져 있다면 to 부정사구는 수식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함된 것이며, 수식대상어를 찾아내면 형용사 기능을 수행하는지, 혹은 부사 기능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p> <p>만일, to 부정사구 이외에 술어가 요구하는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문장요소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장요소 파악 방법만으로 쉽게 to 부정사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p> <p>문장요소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모든 문법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p>
<p>[3] 동명사구와 분사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p>	<p>문장요소 파악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동명사구는 명사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 단위로 사용 되기 때문에 문장요소로만 기능 합니다(물론, 전치사와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p> <p>반면에, 분사구는 수식어로만 기능합니다. 동명사구와 분사구가 가지는 동일 형태에 의한 혼동을 막기 위해 기능을 구분해 둔 것입니다. 문장요소가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 현재분사로 시작되는 완전한 술어구가 포함 되어 있다면 분사구라고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p>
<p>[4] 분사구의 수식대상어를 찾지 못합니다.</p>	<p>수식 관계 파악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분사구는 오로지 형용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수식어입니다. 분사구가 문장에 놓이는 세 가지 위치를 기준으로 삼아 수식대상어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식대상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p>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6]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6]	'Chapter 9. 문장 결합의 파악'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
<p>[1] 접속사가 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p>	<p>문장 결합의 목적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영어는 하나의 문장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문장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1) 두 개 이상의 문장이 결합 되어 만들어진 문장을 결합되지 않은 문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2) 결합될 문장에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접속사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특히 두 번째 접속사의 역할과 관련하여 접속사는 결합된 문장 안에 포함된 문장(절)의 기능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p> <p>문장 결합의 목적을 이해한 후에 접속사를 중심으로 문장 결합 방법을 학습해보세요. 문장 결합에서 담당하는 접속사의 중요성과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p>
<p>[2] 문장 결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절의 기능을 파악하지 못합니다.</p>	<p>접속사가 문장 결합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등위접속사(coordinating conjunctions)를 사용한 단순 연결로 중문(compound sentence)를 만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접속사는 두 개 이상의 문장을 결합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접속사 다음에 오는 절의 기능을 문장요소 혹은 수식어로 결정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절(clause)라는 용어는 문장 결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문장에 포함된, 결합된 각각의 문장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결합에 사용된 문장과 결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문장을 지칭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장'이라는 명칭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 되는 용어입니다.</p> <p>먼저 문장 결합의 목적을 이해한 후에 접속사를 중심에 두고 결합 방법을 학습해보세요. 결합에 사용된 접속사에 따라 문장요소 혹은 수식어로 기능하는 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p>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7]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점 [7]	'Chapter 10. 병렬구조의 파악'이 제시하는 해결 방법
<p>[1]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이상 포함될 수 있다 (복합주어)"는 식으로 알고 있을 뿐, 그것이 병렬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p>	<p>병렬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병렬구조는 같은 기능(문장요소 혹은 수식어)을 수행하는, 같은 종류의 의미 단위(단어, 구 혹은 절)를 두 개 이상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p> <p>리스트(list) 구조이기 때문에 세 개 이상의 대상이 병렬구조로 연결되면 대상이 컴마(comma)로 분리 된다는 점, 마지막 항목 앞에는 의미에 맞게 선택된 접속사가 놓인다는 점,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같은 종류의 의미 단위가 병렬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이 병렬구조 파악을 도와주는 힌트입니다.</p> <p>병렬구조의 사용 이유와 표현 방법을 제대로 학습해두세요. 독해 지문에 흔하게 포함될 만큼 자주 사용 되는 문장 내용 구체화 방법입니다.</p>
<p>[2] 생략된 부분을 파악하지 못합니다.</p>	<p>병렬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병렬구조는 같은 기능(문장요소 혹은 수식어)을 수행하는, 같은 종류의 의미 단위(단어, 구 혹은 절)를 두 개 이상 연결하여 만들어지는 리스트 구조입니다. 만일, '같은 종류의 의미 단위'이기 때문에 생기는 공통된 부분(예를 들어서 두 개의 to 부정사구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공통된 to)이 있다면,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병렬 대상부터 공통 되는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흔한데, 병렬구조와 생략 현상을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하다보니 '공통된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p> <p>막연하게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된 것이 병렬구조라고 알고 있다면, 병렬구조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같은 종류'의 의미 단위(단어/구/절)를 두 개 이상 연결한 구조라고 바로 잡아주세요. 생략 현상을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p>



전치사구라는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했더니 전치사구 안에 **분사구**가 포함되어 있고, 분사구는 다시 **관계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치사구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관계절까지 알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법 배울 때는 각각을 분리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문을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섞여서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독해**를 해야 하는데, **문법**을 다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다른 문법책을 사용한다고 해석이 가능해질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리고 안다고 생각되는 내용만 반복하고 있는 문법책의 내용 때문에 해석 능력이 향상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어 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문법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공부하거나, **문장 5 형식, 문장 패턴** 혹은 **특정 표현 중심**의 암기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글쓰기는 내가 암기한 표현이나 문장 패턴을 그대로 사용해주시 않기 때문**입니다. **해석 포기자**, 그래서 **독해 포기자**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장 작성 규칙**에 바탕을 둔 **해석 연습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문법책이 해석을 위한 문장 작성 규칙을 **체계적**으로 가이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석을 하려면 다음 두 가지 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문장을 구성하는 **의미 단위의 파악**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장은 **단어** 뿐만 아니라 영어가 규정하고 있는 **전치사구, 완전한 술어구**(to 부정사구, 동명사구, 분사구)가 함께 사용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두 개 이상의 문장이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구**를 구분해서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장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개별 단어의 의미**를 **조합**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을 못하겠어요.

[2] **의미 단위의 기능**을 **문장요소** 혹은 **수식어**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장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 문장 작성 방식에 바탕을 둔 해석을 위해서도 문장요소와 수식어의 구분 능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식어를 포함한 주어’의 의미 + ‘수식어를 포함한 완전한 술어의 의미(=술어로 사용된 동사의 완성된 의미)’

위의 두 가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의미 단위의 파악과 기능 구분을 바탕으로 의미를 조합해내는 것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을 마무리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이나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엄청난 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Chapter 11. 직독직해 레슨’**은 Chapter 10까지 학습한 **문장 작성 원칙과 규칙**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독직해’**가 가능해질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과 연습을 제공합니다.

직독직해 연습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에 의해서 해석 연습을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어를 몰라서 해석 혹은 독해가 안된다”**는 잘못된 판단은 일단 접어두는 것이 해석과 독해 연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직독직해 연습을 하는 동안 마주치게 되는 모르는 단어는 그 때 그 때 사전을 활용해서 곧바로 찾아보세요. 일단, **단어**는 해석 연습과 분리해서 따로 학습한다고 생각하고, **완전한 술어와 수식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 단위의 내용**을 **조합**하는 연습에 집중하세요.

문맥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의 의미나 모르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 이외의 **의미 단위** 혹은 **문장**의 의미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습은 개별 문장의 내용 구조에 익숙해진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독해 학습서인 **‘독해학교’**는 이에 관한 자세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문법은 해석'이 제시하는 영어 문법과 해석 학습의 핵심 주제

주제	세부 사항
I. 문법 학습의 문제점 파악	[1] 해석과 영작문은 물론, 문법적합성 문제 풀이마저도 어렵게 느끼게 된 문법 학습의 문제점 파악 [2] 기존 문법 학습 체계의 문제점 파악
II. 문장 작성 방식 중심의 5 단계 문법 학습 방법	[1] 문장(sentence)의 정의(definition) 이해 [2] 문법(grammar)를 문장 작성의 원칙과 규칙 집합체로 이해 [3] 문장 작성 관점에서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이해
III. 문장 내용 구체화 방법 미리 살펴보기	기본 문장 내용의 구체화 방법 네 가지를 예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 a. 수식어의 활용 b. 단어 이외의 의미 단위인 구(phrase)의 활용 c. 문장 결합 방법의 활용 d. 병렬구조의 활용
IV. 완전한 술어의 파악	[1] 완전한 술어 구조와 문장요소 파악 능력 만들기 [2] 완전한 술어 구조를 중심으로 문장을 작성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 만들기 [3] 문장의 내용을 술어로 사용된 동사의 의미가 완성된 내용으로 파악하는 능력 및 완전한 술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능력 만들기
V. 술어가 추가로 제공하는 정보의 파악	[1] 술어가 추가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정보들을 함께 표현하는 능력 만들기 [2] 술어가 동시에 표현하는 정보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만들기
VI. 수식 관계의 파악	[1] 문장요소와 수식어 관계 이해하기 [2] 수식어 및 수식대상어 파악 능력 만들기 [3] '수식어-수식대상어' 조합을 해석하는 능력 만들기
VII. 전치사구의 파악	[1] 전치사구의 범위 파악 능력 만들기 [2] 전치사구의 수식대상어 파악 능력 만들기
VIII. 완전한 술어구의 파악	[1] 완전한 술어구 작성 및 파악 능력 만들기 [2] 완전한 술어구 기능 파악 능력 만들기
IX. 문장 결합의 파악	[1] 문장 결합 능력 만들기 [2] 결합된 문장에 포함된 절의 기능 파악 능력 만들기
X. 병렬구조의 파악	[1] 병렬구조 작성 및 파악 능력 만들기 [2] 병렬구조에 포함된 생략 복원 능력 만들기
XI. 직독직해 레슨	[1] 직독직해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적 연습 방법 이해하기 [2] 집중 연습을 통한 직독직해 능력 만들기

